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위상정립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y as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김형각, 이응봉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yeong-Kag Kim, Eung-Bong Lee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이 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1. 서 론

1.1 연구목적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1998년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한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중추기관인 공공도서관계는 평생교육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것과는 반대로 일각에서 우려하였던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등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지역사회 지식제공 및 문화복지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재고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서관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법

령 및 조례의 분석과 관련문헌 등의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평생학습관 등과의 업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으로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등은 3개관을, 공공도서관은 16개 지역대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등의 신설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의 세부계획(안)을 확보하지 못해 평생학습관 등의 신설을 추진하는 행정주체의 논리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평생교육의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의 정의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성인교육추진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랭그랑(Lengrand)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는 5공화국 헌법 제29조 제5항(현행 헌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

다.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정의는 그 내용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에 따라, 학자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나 표현 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종합해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사회와 직업생활에서 전 생애에 걸쳐 모든 형태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 즉 종전의 사회교육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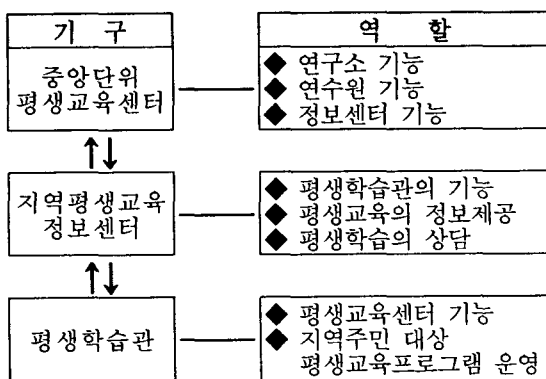
2.2 평생교육기관 및 전담·지원기구 현황

평생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한국 평생교육기관의 총괄 현황은 기관수 207,554개, 교육연인원 19,819,608명, 이용연인원은 119,157,432명에 이른다.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중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도서관은 8개 기관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2.3 평생교육지원·전담 기구 및 역할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역할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및 역할

3. 운영현황 및 문제점

3.1 운영현황 및 추세

한국도서관통계(2000)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386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명칭이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교육문화회관이나 정보문화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관하여 도서관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총 16개관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3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추세에 있다.

자치단체별로 평생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신규 평생학습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에서의 근간이 학습자의 자발성이듯 공공도서관 이용자 또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오는 것이므로 이들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정보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시설의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개 지역대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독서지도, 도서관이용교육, 각종 문고운영, 어학강좌, 공연·전시회, 생활 및 취미활동, 전통문화교육, 정보화교육 그리고 각종 교양교육 및 강연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3.3. 평생학습관 운영

오늘날 세계화 및 정보사회 구축이라는 배경에서 지식은 스톡(stock)의 개념에서 플로우(flow)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끝없이 나타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식은 적시성(適時性) 및 그 적합성(適合性), 그리고 구체적 맥락성(脈絡性)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가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의 신

화가 무너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차가 더욱 고착화되어감에 따라 계속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조사대상 3개관의 기능 및 운영의 역점방향은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3개 기관 공히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4. 문제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양립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사이에서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훼손·왜곡될 소지가 있다.

둘째, 양 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차별성이 없고 단순히 명칭만 이원화되어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질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 명칭변경 및 신설과 관련하여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평생학습관이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현재와 같이 공공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설립·운영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섯째, 평생교육의 고귀한 이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생교육법에서와 같은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체계 및 기능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당 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평생교육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4.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4.1. 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공공도서관은 지식국가, 지식산업의 인프라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가능하는 척도는 결국 그 사회의 도서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 반면, 평생학습관과 같은 명칭의 공간은 그것이 무엇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교육기능을 대표하는 부차적 보완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반시설과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직종간 이합집산이 보편화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문화강좌는 더 이상 평생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정보의 재생산을 통해 등장하고 이러한 재생산의 원동력은 비전과 창의력에서 나온다. 결국 비전과 창의력의 증진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4.2.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변화

현재와 같이 모든 봉사대상자를 염두에 둔 백화점식 단순한 문화강좌로 채워지는 커리큘럼을 탈피하여야 한다. 정보의 보고로서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학습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방향을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4.3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단일화

그동안 슬하게 지적되어온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난맥상이 타파되지 않는 한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도서관의 황폐화를 저지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행정체계의 난맥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 내부에서 합리적 모형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도서관인들의 자발적이고 일치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이 모색·실천되어야 한다.

4.4 평생교육법 및 조직체계의 혁신

현행 평생교육법 제13조 및 14조의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중앙단위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평생교육관련 연구, 정보수집, 종사자 연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평생학습관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일원화하여 지방교육청 내 평생교육체육과 등의 하부조직으로 하되 그 기능은 평생교육시설간 프로그램의 연계, 상담, 평생교육정보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평생교육 시설에서는 각 시설의 장점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도서관계의 내부혁신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도서관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도서관계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결론

어느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키고 독서의 생활화를 선도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현 위치는 빈약한 정보원, 부실한 정보봉사기능, 이용자의 인식부족, 미약한 행·재정적 지원 등 열악한 주변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이처럼 열악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관계기관의 인식전환과 도서관계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현상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국민적 캠페인과 도서관 행정의 난맥상을 타개하고 도서관 자료의 질적 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각계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공도서관수호비생대책위원회. 『서울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1998년 12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권기원, 윤희운.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 연구 : 6대 도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1997):113-137
- 金南碩.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조건조성에 관한 연구: 시설과 자료를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 14 (1987): 1-37
- 김달곤.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환경개선.” 『강남대사회과학논총』, 4 (1997): 375-389
- 남정걸, 권이중. 『사회교육행정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윤 영.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고찰” 『圖書館學論集』 10 (1983): 133-155
- 윤희운 “한국 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 도서관 정보학회지』 30(2) (1999): 29-53
- 이용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 공공도서관에 관한 소고” 『도서관』 353 (1999): 30-50
-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357 (2000)
-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 문화』 298 (1996): 161-173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0』.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 한승희, “신지식인 운동의 선결과제로서의 평생학습 사회 실현,” 『교육마당 21』 20(1999. 5): p.39
- 韓允玉.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 『京畿大論文集(인문, 사회과학)』 17 (1983): 1-37
- 홍현진, “도서관조직의 기술혁신 및 행정혁신에 관한 조직상황론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1994): 343-388
-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2000』, 서울: 교육부, 2000.